

INDEX

주요연론동향2
벤처동향3, 4
· 정책동향, 기술동향
· 산업동향, 업계동향
해외소식5
· 새로운 중국과 과학기술
드라이브
특집6, 7
· M&A, 기회인가 위험인가
성공벤처8
· 성공벤처기업시리즈(5)
'아이에프네트워크'
이것만은 최고(3)9
· '인재확보만은 자신있다'
'바이오스페이스'
협회뉴스10, 11
· 2003년도 사업계획 발표
· 한· 이스라엘 벤처간담회 개최
대덕밸리 소식12, 13
역사속에 빛나는 기업이 정신
.....14
· 불우한 운명을 역전의 지렛대로
삼은 동무
노블리스 오블리제15
· 자선사업을 하는 불운한
기업가들
책으로 보는 세상읽기16
· 경제적 개념의 '풍요'
탈레마 벗기
문화마당17
· 신간안내, 공연/전시 안내
회원사 소식18
지회소식19
한국여성벤처협회 소식20
기관소식21
포토에세이22
행사안내23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 발행인: 장흥순
- 발행처: 벤처기업협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7층
- TEL, 02-6009-4100
FAX, 02-6009-4115
- http://www.kova.or.kr

기회는 아직 있다

연원석/한국기술거래소 대표



벤처업계는 지난 몇 년 동안 전체 수출과 고용시장에서의 비중이 꾸준히 성장하는 등 국가경제에서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경기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부실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상당수는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코스닥 및 벤처캐피탈 등 자금시장의 급랭으로 자금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벤처업계에 아직 희망을 걸고 있다. 우리의 곁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이 있고, 한국경제 자체도 성장률이 가

장 빠른 편에 속한다. 생각해 보면 활력 없는 천국보다는 역동적인 지옥이 벤처기업인들에게 오히려 더 기회일 수 있다.

벤처인들은 초심으로 돌아가 벤처정신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무실 간이 침낭에서 새우잠을 자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밤세워 연구개발에 매달렸던 시절을 기억해야 한다. 지난시절 벤처열풍이 계속되다 보니 흐름에 휩쓸려 재벌을 비판하고 나섰으면서도 스스로 재벌의 행태를 따라하지 않았는지, 연구개발보다는 머니게임에 더 집중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벤처업계의 부진은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며, 지식기반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취약점으로 작용한다. 국가경제의 한축을 맡아야 할 벤처의 장기침체는 국가전체적으로 큰 짐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벤처업계는 과잉이고 거품이 남아있다. 거품을 빼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인들의 노력 못지않게 한국기술거래소와 같은 관련 기관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활발히 우수 기술이 이전되고 필요한 기업간에 M&A가 진행될 때 자원은 좀더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우리 벤처업계의 경쟁력은 강화될 수 있다.

한국기술거래소는 기술이전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기술이전비용 및 기술평가수수료를 일부 지원하고, 상설기술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국민창투 및 한술창투와 각기 100억 규모의 "KTTC(한국기술거래소) 기술사업화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우수 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투자를 앞선하고 있다. 그리고 벤처업계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더욱 활발히 M&A 사업을 벌여나갈 생각이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전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펼쳐져 있다. 벤처기업인들이 초심으로 돌아와 자체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한국기술거래소와 같은 관련 기관들이 산업기반조성에 힘쓰는다면 우리 벤처업계에 기회는 다시 주어질 것이다.

그 동안 <KOVA News>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KOVA News>가 다음호부터 전면 개편을 통해 새 이름 새 얼굴로 찾아갑니다. 계속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